

그리스도인의

구멍 난 기록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삶의 간극 매우기

Kevin Deyoung

THE H●LE IN ●UR H●LINESS

최정균 목사

구멍 난 거룩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삶의 간극 메우기

Kevin Deyoung

이 책이 다루려는 주제는 부제가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삶의 간극 메우기”가 그것이다.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한 고민은 제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 보이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어찌된 일인지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과 간절한 추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멍 난 거룩의 증상 : “경건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책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묻고 있는 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신에게 거룩한 삶이 필수가 아니며 굳이 그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구멍 난 거룩’의 증상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현재 거룩한가?’가 아니라 ‘당신은 경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힘써 추구하고 있는가?’이다.

드영은 자신과 교회가 나름대로 경건에 힘쓰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들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유한다. 첫째, 우리의 모든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났는가? 둘째, 우리의 천국은 거룩한 곳인가? 우리는 지상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청교도들의 열정과 기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청교도주의는 개혁주의 거룩 운동이었다. 과연 우리의 삶과 교회도 그들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가?

천국의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천사들은 거룩한 피조물이며, 그 백성들도 거룩한 성도들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천국의 복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에 대한 명령을 지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지상명령은 거룩함에 관한 것이다. 순종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울 것을 명하셨다. 지상명령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들을

전파하는 것이다.

구멍 난 거룩의 원인 : “복음에 대한 오해”

드영은 구멍 난 거룩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¹⁾한다. 그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오해, 즉 복음 중심적이라면 규율이나 책무, 도덕적 노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율법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 심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폐기를 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신칭의 교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이 아직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갈 5:6), 반드시 삶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는 결코 방종에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때까지 결코 완전해 질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날마다 죄의 세력(지배)로부터 구원받아가야 한다(빌 2: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행위조차도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으며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한 나머지 거룩해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아예 성화를 위한 노력조차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J. I. 패커는 말했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거룩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사람이 원하는 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쉬운 믿음주의나 값싼 은혜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거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거해 버리는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

1) ① 경건은 몇 가지 금기사항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② 교회 안에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③ 쿨(cool)한 것을 강조하는 문화, ④ 복음에 대한 오해(규율과 노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이 의미하는 것 : “성경이 말하는 것”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선물로 얻는 확정적 성화가 있고, 평생 동안 몸부림쳐서 얻어가야 하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체성이다.”(50p)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드영은 거룩함이 아닌 것들 다섯 가지²⁾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다섯 가지³⁾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 낸 이교적이거나 세속적인 방식, 혹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을 거룩함으로 치환하거나 축소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삶의 규범으로 정해주신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
- 2)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세대 간의 모방이 아니다. 포괄적인 영성이 아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 3)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악이 아닌 선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거룩함으로 이끄는 명령과 처방 : “율법”

율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율법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이 율법의 제3용법⁴⁾을 주장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율법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근거로 제시될 수는 없지만, 이미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는 삶의 규범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으로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대한 공포증과 복음의 값없는 은혜를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선물로 주어진 율법에 대한 강조를 배제해 버려서는 안 된다. 드영의 말을 들어보자.

“문제는 선한 행동이 오로지 복음을 강조해야만 흘러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있다. 설교자들을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직접적으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우리가 참으로 믿기만 하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계명이나 노력이 무엇에 필요한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다. 그러므로 이것저

-
- 4) 칼빈은 죄를 지적하고 억제하는 기능 외의 3번째 기능, 즉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기능한다고 보았다.

것은 피하고 이것저것은 꼭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선행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에 근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만 기대한 나머지 성령께서 주신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거룩함의 동기 : “불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은 신자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동기를 상실하게끔 만든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추구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신자의 거룩함은 가능하며 비록 그것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드영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우리 안에는 늘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록 흠과 티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님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다.”(99~100p)

위로의 적용 :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나태와 방종으로 이끌게 된다. 그러므로 성화와 연관된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성경을 따라 거룩 추구의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얻는 칭의와 확정적 성화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 성화의 강력한 근거이자 동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거룩한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해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완전한 거룩함이 가능했다면 복음은 필요 없었을 것이며, 복음이 없다면 성화는 불가능하고 위선과 좌절만이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자들이 얻은 칭의와 확정적 성화는 점진적 성화가 가능하게 하며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거가 된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확정적 성화에 의해서, 비록 장차 영화롭게 되기 전에는 불완전한 점진적 성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닌 진실한 회개로 이끌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록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와 격려가 된다.

기록함의 원동력 : “성령, 복음, 믿음”

성화는 신자 개인의 결심과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성화를 위해 성령의 동력, 복음의 추진력, 믿음의 연료를 허락하셨다.

신자들을 거둬들여 하신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예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121p) 또한 성령께서는 빛으로서 죄와 말씀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신자를 기록하게 하신다. 만일 신자가 이 빛에 고의적으로 눈 감고 죄에 쉽게 항복하거나 경건의 노력을 단념한다면 이는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에 의해 우리나라오는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죄를 멀리하게 되며 기록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이드존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대신 자신에게 복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와 상태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설교해야 한다.

믿음은 칭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장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음으로 붙잡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마귀의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며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당신의 죄에 대해, 당신이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129p)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하신다.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은 자신의 성화를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쓰는 자들이다. 죄를 죽이기 위해 애쓰고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쓴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지만 육체와 사탄을 거스르는 싸움은 결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뚜렷한 표시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내적 싸움과 내적 평안이다.....칼빈의 말에 따르면 부패한 육신의 행위를 벗어 버리는 일은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고된 작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을 명령하신다.....경건에 이르는 길에서는 믿는 것이 애쓰는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131~134p)

거룩함의 원천 :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에 따르면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칭의와 성화가 모두 연합에 의해 주어지며 가능하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연합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모든 은택들을 소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를 닮아가게 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구원도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모든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성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킨다(롬 6:4; 골 3:1~3; 고후 5:15,17; 갈 2:20; 엡 2:4~6,10; 골 2:6; 3:12~14). 이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자는 성경을 따라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신분보다 우선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다.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그런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신분과 상태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를 힘입어 그를 닮아가는 일이다.

거룩함의 걸림돌 : 성적인 죄

드영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죄는 마치 구약 시대의 타협 상징인 산당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훌륭한 왕들마다 우상과 거짓 종교를 제거하는 일에 힘썼으면 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성경에 따르면 명백한 성적인 부도덕을 법적 기준에 따라 심각하지만 않으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오락거리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거기에 길들여져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분명 성경이 성적인 죄를 바라보는 것과 괴리가 있다. 아무리 심각한 것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자 본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명백한 타협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 시대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성경은 남녀가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를 죄로 본다. 성경이 주는 교훈은 이 모든 죄로부터 피하라고 명령한다.

현 시대의 문화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의 몸을 하나님과 관련시킨다. 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고전 6:19), 그리스도의 지체다(고전 6:15).

“우리 몸은 더 이상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전 6:20).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성적인 죄를 범하면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지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성적인 죄가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몸에 저지르는 죄일 뿐 아니라 당신이 지체로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8~169p)

에베소서 5:3~12절에서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 것을 명하며(기미조차 보이지 말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금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죄를 유희처럼 즐기지만 빛의 자녀들인 신자들에게는 어울리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죄에 불과하다. 신자들은 자신을 주변의 환경에 물이 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드영의 조언과 같이 성적 쾌락과 자극으로 자신의 양심을 약화시키고 영적 민감함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룩함을 진작시키는 길 :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전 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이 없이는 칭의도 성화도 불가능하며 당연히 영화도 불가능하다. 이제 드영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가능해진 소중하고 필수적인 또 하나의 선물을 소개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대단한 특권이다. 드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둘은 서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동의어는 아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성령의 역사다. 한번 연합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떤 것도 그 연합의 상태를 더하거나 덜하게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마디로 변동불가다. 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죄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것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상태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지만(연합) 결혼의 유대가 더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다(교제).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은혜의 수단에 열심을 쏟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점점 더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188~189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거룩을 진작시키는 특권이자 선물인 동시에 거룩한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인가! 에덴동산에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다면, 그 이래로 이어진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속사의 마지막 지향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다. J. I. 패커의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 도달하려는 궁극적 지향점이요, 신학과 설교로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그것은 참된 종교의 본질이며 기독교 그 자체다.’”(203p)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가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면 그리스

도와의 교제가 성화를 진작시키기 때문에 신자는 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성화와 사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주어진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로 교회사와 신앙의 선배들의 자서전들을 읽다보면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은 거룩함과 영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드영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위해 네 가지의 지침⁵⁾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에 죄책감을 갖는다.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혹은 어떤 필요들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분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될 것

5)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추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추구한다. 그리스도인들과의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추구한다. 성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추구한다.

이기 때문이다.

연합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는 말씀이 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편이다. 따라서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불가능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친교**는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 지체들 상호간의 친교를 통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성찬**으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하다. 드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믿음으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이다. 성만찬은 복음이 눈에 보이도록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자 대접할 음식으로 친히 참여하시려는 영적 향연이다. 비록 몸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는 실재다. 주의 식탁에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어 친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202p)

거룩함을 위한 조언 : 완전함이 아닌 회개

드영은 디모데전서 4:15절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에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고 더 거룩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격려를 얻었다고 한다. 신자들이 성숙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비록 현재는 거룩함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방향만 잘 잡고 있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신의 거룩함을 진단할 때에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성만 재점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또한 자신의 성숙에 대한 점검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사람이 성화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신 안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성자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바다. 거룩해질수록 자신이 더 거룩하지 않다고 느낀다. 즉 당신의 삶 속에서

죄를 더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개 성령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표시다.”(210p)

드영은 성화의 주된 특징을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에 더 가깝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은 성장과 정체,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전혀 범죄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면 거룩함에는 회개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회개는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토머스 브룩스는 회개를 영혼의 구토라고 묘사하였다. 회개가 이렇듯 고통스럽지만 열매는 달콤하다. 드영은 다음과 같이 이 책을 마무리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까닭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그분은 흠도 티도 없는 신부를 맞이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고, 더불어 당신이 힘써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다.”(222p)